

14. 진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나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

단원들은 성인을 다루든, 죄인을 다루든, 똑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원들이 사람들을 방문할 때는, 빈약한 영성을 지닌 한 사람의 신자로서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 군단의 대표로 나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15. 막연한 사도직은 진정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어떤 활동을 수행하든 그 활동의 목적은 중요하고도 뚜렷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며,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많은 선행을 적은 수의 사람에게 베풀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결코 적은 선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16. 감화의 비결은 사랑이다.

레지오 단원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반드시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만이 실질적이며 광범위한 레지오의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권고나 없는 활동은 그 성과가 알맹이가 없거나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17. 레지오 단원은 활동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뵈고 그리스도께 봉사한다. 레지오 단원이 방문 활동에 나설 때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듯한 태도나 동등한 입장에서 방문한다는 자세여서는 안된다. 겸손한 태도로 문을 두드리고 호감을 가는 레지오 단원들은, 비록 물질적인 선물을 손에 들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일 것이며, 곧 참된 우정의 발판이 마련된다.

18. 성모님은 레지오 단원을 통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사랑하고 보살피신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불분개 되며 성모님은 레지오 단원들을 도와 주실 것이다.

19. 겸손하고 정중한 레지오 단원에게는 어느 집이나 문이 열린다.

방문하는 단원은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집주인의 호의로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때 유의 할 점은, 방문 목적이 무엇을 가르치거나 질문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익히고 점차 친교의 씨를 뿌리고자 찾아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 공공 시설을 방문할 때의 몸가짐

레지오 단원이 공공 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치 개인 집을 방문하는 손님처럼 그 곳 책임자의 호의로 방문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자선을 베풀러 왔더라도 직원의 안내나 규정을 어가서는 안된다.

21.레지오 단원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원이 이웃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마치 다른 이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이나 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레지오 사명에 모순된 일이다.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것은 레지오 단원의 역할이 아니다. 단원들은 성모님이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22. 악평에 대한 태도

이미 교본 여러 곳에서 착한 지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평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단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대중은 쉽게 자극받고 불평을 털어 놓는데 이 불만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살제로 이 불만이 발진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단원의 활동이 다소 비평을 불러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방법상의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다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